

5. 다니엘의 비전과 예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증언: 요세푸스는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니엘의 예언에 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분명한 정보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¹⁾ 선망 받는 제사장 가문 출신인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 당시 중요한 지도자였다. 그는 유대 전쟁에 관한 역사를 기술하도록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었다. 그의 역사 서술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예언 성취와 유대-로마 전쟁의 역사에 관해 충분히 알지 못했을 것이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다니엘은 정확하게 메시아가 올 때를 예언했다고 한다.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될 날 뿐만 아니라, 세상 마지막 때에 관하여 예언했다. 그리고 그때에야 비로소 그의 예언이 이해될 수 있다고 암시했다.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 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음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다니엘 12:4)

선지자의 예언들 중 어떤 것도 그것이 성취되기 전에는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는다. 이 문제에 관하여,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8:22)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민수기 12:6-8)

우리가 다니엘서를 해석하기에 앞서, 예언의 몇 가지 속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미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단 9:24)

▷ 하루는 일 년, 한 달은 삼십년, 따라서 한 계절은 90년, 일 년은 360년이

1) The Nation Israel 6-8p

다. (겔 4:6, 민 14:34, 레 25:8, 창 29:27 등)

- ▷ 오직 하나님만 왕들과 나라들을 세우신다. (단 2:20-23)
- ▷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성부 하나님이다. (단 7:13)
- ▷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단 7:13)
- ▷ 마지막 때에 비로소 이해될 것이다. (단 12:4)
- ▷ 다니엘에서의 그리스도 모형

세상 왕국을 쳐부술 큰 돌(2:34,35,45)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므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돌이 사람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으신다(마21:42-44, 롬9:33, 벧전2:4, 고전10:4) 풀무불 속에서 등장하는 신의 아들(3:25)은 고난받는 성도와 함께 계시고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권세를 받은 인자(7:13,14)란 표현은 하나님으로 부터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요17:2; 눅12:4) 하고 있는 표현이다. 쇠하지 아니할 왕국(7:13,14)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말하며 재림의 그리스도(7:13)는 구름타고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기름부음을 받은 자(9:25,26)는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계1:12-16).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앞서 예수그리스도의 초림에 맞춘 예언이 중심이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신상의 크기도 초림의 예수께 맞출 때 정상적인 모습이 된다.

다니엘 1장. 다니엘 서론(Instruction to Daniel)²⁾

바벨론 포로 시기는 성경 연대기 그 자체로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계산될 수 있어서, 그것을 지지하기 위한 또 다른 연대 자료가 필요치 않는다. 그 후 성경 연대는 다니엘의 예언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예레미야가 예언한 바벨론 70년 포로기간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분명히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다니엘에게 바벨론 포로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세상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계시와 통찰력을 주셨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쫓겨나서 마지막 때가 되기까지는 다니엘서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지지 않았다.

또한 다니엘 1장의 전치사 하나를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느부

2) Theochronometrics 13p

갓네살의 통치 년도가 뒤틀리게 되었다. 이것을 바로잡게 되었을 때 퍼즐이 하나씩 풀리게 되어 있다. 느부갓네살은 606년에 왕이 되어 602년부터 남유다 여호야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느부갓네살의 여호야김에 대한 통치 3년인 BC 599년에 여호야김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이고 1차 포로이동이 시작 되었다.

BC.599.11.13.Sat. (AM.3402.08.22.)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그 해에 다니엘도 끌려갔다. 이 해는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아래 삼년 째 되는 해였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야김의 마지막 통치년도가 되는 해였다. (열하 24:1) 다니엘은 왕족 출신이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는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죽임을 당하였을 때 그 뒤를 이은 여호야김의 사촌이었다. 그는 요시아 왕의 손자일수 있으며, 아몬의 증손자, 므낫세의 고손자일 수 있다. 따라서,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자손일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의 자손 중에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열하 20:18), 이 예언은 4세대 후(106년) 다니엘을 통해 성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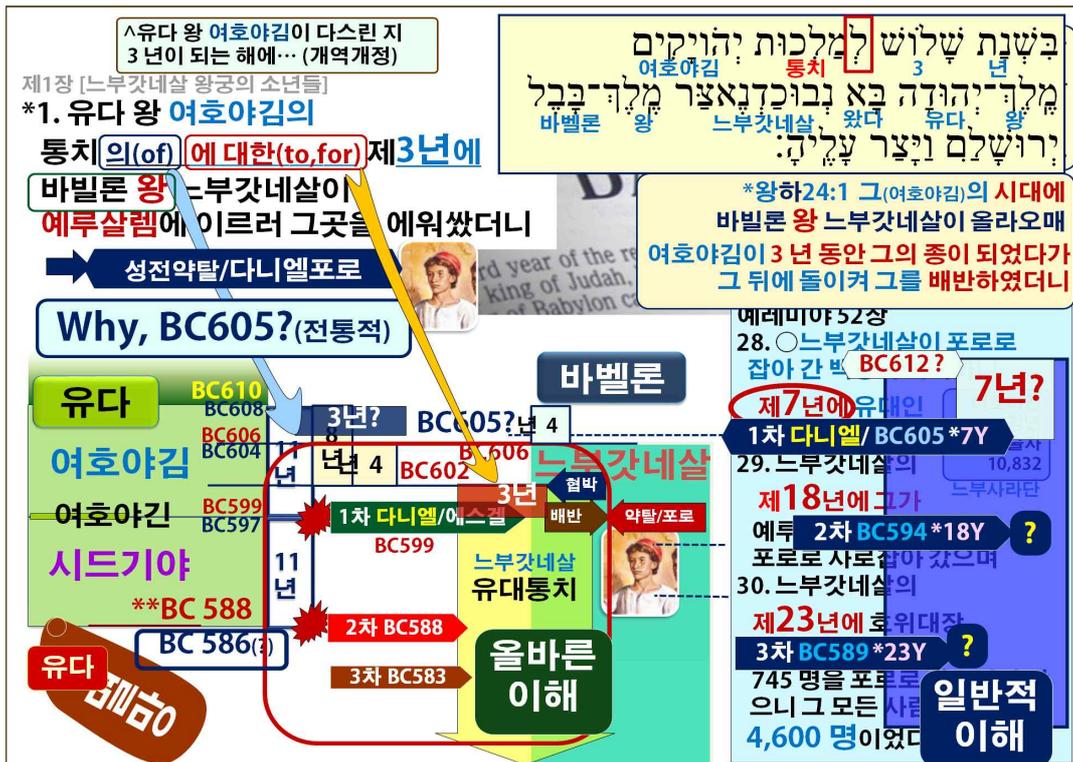


그림 1 다니엘 1장 1절의 올바른 해석과 3차 포로 BC 599, 588, 583년

BC.596.03.27.Wed.(AM.3405.01.01.)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열 배나 뛰어날 정도로 우수하게 바벨론의 특수 학교를 졸업하였고, 바벨론 왕궁의 행정가로 일하게 되었다. (20절)

BC.593.08.23.Wed.(AM.3408.06.05.)

다니엘의 믿음은 욥과 노아의 믿음에 비교할 수 있다. (겔 14:14)

BC.588.01.10.Sun.(AM.3413.01.01.)

다니엘은 그의 지혜의 은사들로 인하여 잘 알려졌다. (겔 28:3)

BC.551.12.14.Sat.(AM.3450.09.14.)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까지 바벨론에 있었다. (21절)

BC.491.08.05.Fri.(AM.3510.05.03.)

다니엘은 느헤미야에 의해 만들어진 성명서에 서명하기 위해 유다로 갔던 인물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그 당시 100살은 넘은 나이였을 것이다.

다니엘 2장. 네 번째 제국과 하나님 나라³⁾

(The fourth nation and the kingdom of God)

2 장에 나오는 각 왕국들이 유대를 통치한 기간은 그 비율을 따져볼 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난 신상의 머리에서부터 발 밑까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제가 왕에게 말씀드린 꿈과 해몽은 확실하고 믿을 만 합니다 (45절)' 라고 말했다. 이 신상은 바벨론의 벽화에서 그대로 따온 것인데, 그 치수의 비율을 따져보면, 일백년이 일 인치의 비율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바벨론 기반을 다시 세운 나보폴라사르(Nabopolassar)왕 통치 원년 (628 B.C.) 부터 유대 민족이 맛사다에서 최후로 죽임을 당할 때 (A.D.73년)까지 정확히 700년 기간이다. 그리고 이 신상의 길이는 7인치이다.

1) 금으로 된 머리 (The head of Gold)

머리는 바벨론 왕국을 나타내는데, 바벨론은 나보폴라사르 왕의 통치 원년

3) History, Harmony & Daniel 48-51p - 다니엘서의 구절구절을 연대기적으로 해석한 책

부터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의 통치 원년까지 107년간을 통치하였다. 바벨론 원년부터 40년 후 바벨론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뺏을 때가 정확히 신상의 두 눈의 위치에서 일어났다. (BC.588) (왕하 25:7) 그리고 바벨론 이후 77년 되는 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는 칙령을 발표했다. (스 1:1) 이 때가 고레스 왕 원년이며 정확히 신상의 입 부분이다. (BC.521) 바벨론 이후 107년 되는 해, 바벨론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렘 25:11-13) 신상의 어깨 부분에서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에게 멸망당했다. (BC.521)

2) 은으로 된 가슴과 팔 (The chest and arms of Silver)

이것은 유다를 다스릴 두 번째 왕국을 나타낸다. 이 왕국은 두 개의 팔로 알 수 있듯이,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두 민족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열 개의 손가락이 상징하듯 첫째 다리우스에서부터 마지막 다리우스까지 10명의 페르시아 왕을 나타낸다. (다리우스는 이집트의 바로(Pharaoh)와 같은 왕의 칭호이다) 페르시아 왕국은 다리우스 1세(BC.521)부터 다리우스 3세(BC.331)까지 계속되었다. 이 190년간의 기간은 정확히 신상의 1.9인치이며, 허리 부분에서 페르시아 왕국은 막을 내린다.

3) 청동으로 된 허리와 넓적다리 (The Waist and Thighs of Bronze)

세 번째 나라는 넓적다리를 포함하는 허리에서부터 무릎까지의 부분인데, 그리스를 나타낸다. BC.331년 알렉산더 대왕은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유다의 대제사장 얏두아(Jaddus)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의 도착에 대해 예언한 다니엘서의 한 부분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결국, 다니엘이 받은 그 비전으로 인해 알렉산더 대왕은 유대인들과는 평화롭게 지냈다. (요세푸스의 Antiquities 11장 중에서) 알렉산더는 겨우 12년간 통치하고 죽었으며, 그 후 그리스의 제국은 그의 장군들에 의해 분할되었다, 장군들 사이의 다툼은 셀류커스(Seleucus)가 즉위한 BC.312년까지 계속되었고 결국 셀류커스와 프톨레미(Ptolemies) 두 그리스 왕들은 시리아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놓고 전쟁을 하였다. 이 분할은 정확히 신상의 두 넓적다리가 교차하는 부분에서 일어났다. (BC.312) 그리스의 이스라엘 통치는 유대인들이 로마와 동맹했을 때 비로소 막을 내린다. (BC.161) 그리스의 통치는 170년간 계속되었는데, 이 기간은 정확히 허리에서 무릎까지 1.7인치되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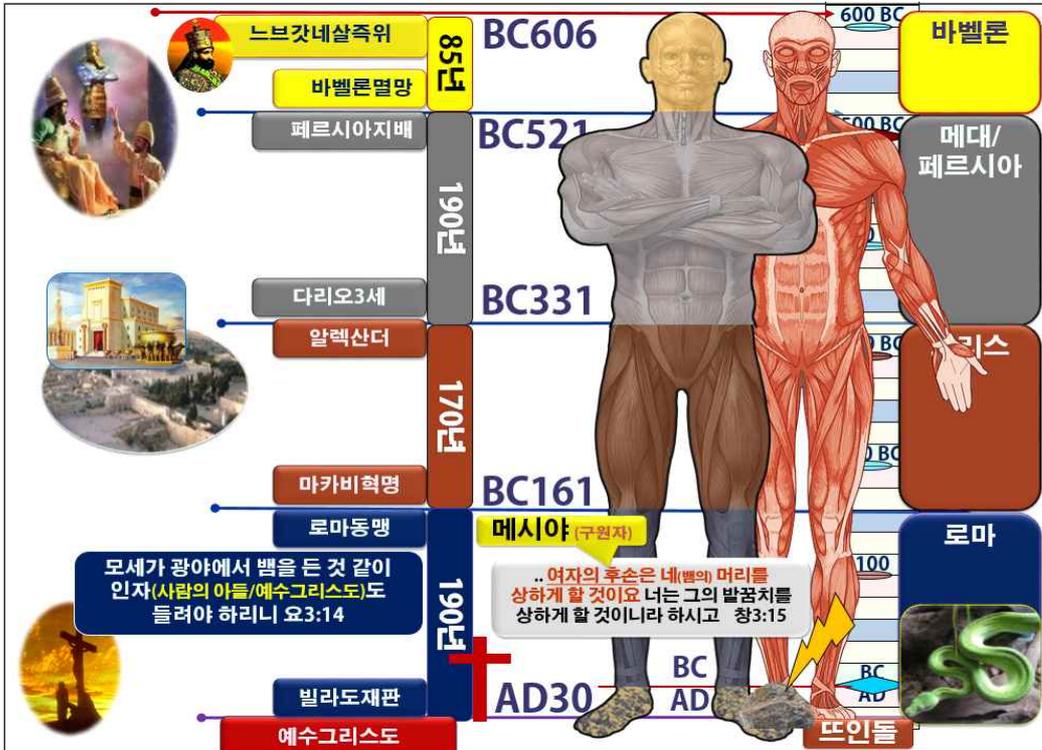


그림 2 금신상의 비율과 네 나라의 통치시기

4) 철로 된 다리와 철과 진흙이 섞인 발

(The Legs of Iron, and the Feet of Iron and Clay)

철로 상징된 네 번째 왕국은 무릎부터 발까지를 포함하는 부분이다. 로마는 줄리어스 시저(Caesars) 이전까지는 공화정이었다. 시저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베스파시안(Vespasian)은 열 번째 황제였다. 시저는 권력을 가지고 BC.61년에 황제가 되었다. 발목 부분의 시간에서, 그 왕국은 순수한 철에서부터 진흙과 함께 섞였다. 이 철과 진흙의 혼합 부분은 5인치, 즉, 50년 정도 계속되었다. 세레요한의 사역은 AD.24년, 즉 발목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는 헤롯을 책망하여 처형되었다. 헤롯은 놀랍게도 진흙의 나라라고 불리는 에돔(Edom)에서 온 왕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당시 유다는 부분적으로는 철의 나라 로마의 빌라도(Pilate)에 의해, 그리고 진흙의 나라 에돔의 헤롯(Herod)에 의해 지배되었다.

5) 바위로 된 하나님 (The Rock Kingdom of God)

다섯 번째 나라는 다른 왕국들과는 달랐다. 그 나라는 금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바위로 된 나라였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나라였다. 그것은 큰 산에서 쓰여진 작은 돌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작은 돌은 발목 부위에서 바벨론 신상을 부서뜨렸다. 이 작은 돌로 인해 이루어진

왕국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포함한다. 이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히 종속할 것이다. 야곱의 사다리 사건 이후, 바위(The Rock)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상징이 되어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Passion) 역시 역사상 발목 부분의 순간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이사야 8장 14절을 그에 관한 언급이라고 인용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 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마 21:42-43)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한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또한 믿는 자들이 모여 이루는 진정한 성전의 모퉁이 돌(The keystone)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복음을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영원한 나라인 것이다. 그는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인격체(The God-man)셨던 것이다.

주 네 하나님께서 네 한가운데서 곧 네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네가 집회의 날에 호렙세어 주 네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것이 이러하니 곧 네가 이르기를, 내가 죽지 않도록 다시 주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말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말게 하소서, 하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한 것은 그들이 잘 말하였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그러나 만일 대언자가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대언자는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신 18:15-20)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 오시기로 되어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The lamb of God)'이라고 지목했다.(요 1:21-29) 다니엘의 예언을 믿고 있었던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제가 당신의 오른편에 앉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 그 때 예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결국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선지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모세가 그것을 예언한 후 정확히 77,777주(Weeks)후에 로마 장군 티투스(Titus)에 의해 열방으로 흩어졌다. (AM.2579.11.01/BC.1421.01.22.~AM.4070.06.14./AD70.09.06)

다니엘 3장. 예수아와 함께한 풀무불 속의 고난4)
(Persecution In the Furnace with Yeshua)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을 만들고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그 신상에 경배할 것을 명령했다. (단 3:4) 모든 이방인들은 왕의 명령대로 경배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유대인들은 금 신상에 경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다. (단 3:19) 풀무불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보호를 받았다. 그들이 풀무불 속에서 나왔을 때, 왕은 보다 높은 직책을 주며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이상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이야기다. 그러나 다니엘 3장은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 이상의 의미가 담겨있다. 이 이야기도 다니엘서의 다른 장들처럼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예언한 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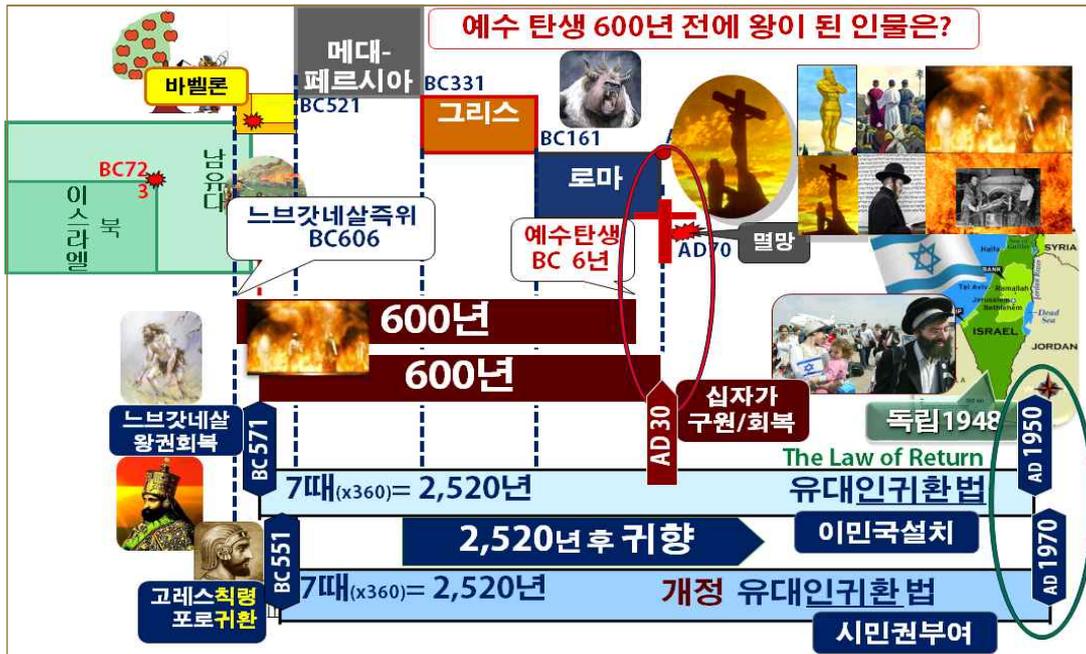


그림 3 다니엘 3장과 풀무불 고난,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4) Theochronometrics 15p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눅 1:32)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그들은 독일의 대학살(Holocaust)같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처음부터 그들의 고난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 이스라엘은 결코 멸망당하지 않았으며 결국 일곱 때 ($360 \times 7 = 2520$ 년)가 되는 시간, 바로 오늘날 그들의 땅으로 되돌아왔다.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왕이었다. 예수님 또한 만왕의 왕이셨다. 느부갓네살 왕은 높이 60규빗, 너비 6규빗의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전 정확히 600년 전에 왕이 되었다. (BC.606년 - BC.6년) 그리고 그는 짐승(소)과 같이 되는 병에 걸린 후 다시 왕이 되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기 정확히 600년 전이다. (BC.571년 - AD.30년)

느부갓네살왕은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660년 전, 예루살렘을 침공하였다. (AD.70년 - 660 = BC.591년) 느부갓네살 왕은 소와 같이 되는 병에 걸려 7년 후 다시 그의 왕권을 되찾았는데, 이는 정확히 창조 후 $3430(7 \times 7 \times 70)$ 년이 지나서였다. 예수님은 창조 후 4030년에 돌아가셔서 크리스천의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다. 년도와 치수에 나타난 독특한 유형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며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준다.

다니엘 4장. 이방인 밑에서 받은 일곱 배의 고난 (Seven times under Gentiles)

4장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 2520년**을 추정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⁵⁾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미래는 나무로 비유된다. 느부갓네살 왕은 나무에 관한 꿈을 꾸었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였다.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나무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자에 의해 베임을 당한다. 그리고 이 나무는 하늘의 이슬을 맞고 땅의 식물 가운데서 짐승과 함께 살게 된다. 이 나무는 분명히 어떤 모형을 나타내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과 함께 거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들 가운데로 쫓겨 7년 동안 거한다는 이 모형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로 쫓겨 그들과 함께 거한다는 것을 예언한다.

따라서 느부갓네살의 7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왕권을 주시기 시작할 때 (BC.571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공식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AD.1950

5) The Nation Israel 9-10p

년)까지 계산해 볼 때, 정확히 일곱 때 (360×7=2520년)가 된다. 그림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루를 일 년으로 계산한다면, 이 꿈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하여 정확히 예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꿈을 꾸 지 1년 뒤, 스스로의 업적과 성취에 대하여 교만하였던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짐승들과 함께 거하며 짐승처럼 살게 되었다. 그가 의식이 회복되었을 때 그는 진정한 신인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A. 360년씩 분할된 나무의 줄기

- 바벨론에서부터 로마까지 한 때(360년)이다. (BC.521년-BC.161년)
- 그리스에서부터 메시아까지 한 때(360년)이다 (BC.331년-AD.30년)

B. 2520년 된 나무의 높이

- 느부갓네살의 회복에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까지는 정확히 일곱 때, 2520년이다.(BC.571년 - AD.1950년 귀환법-Law of Return)
- 바벨론의 멸망에서부터 유대인들의 마음이 회복될 때 까지 일곱 때, 2520년 일 수 있다. (BC.521년 - AD.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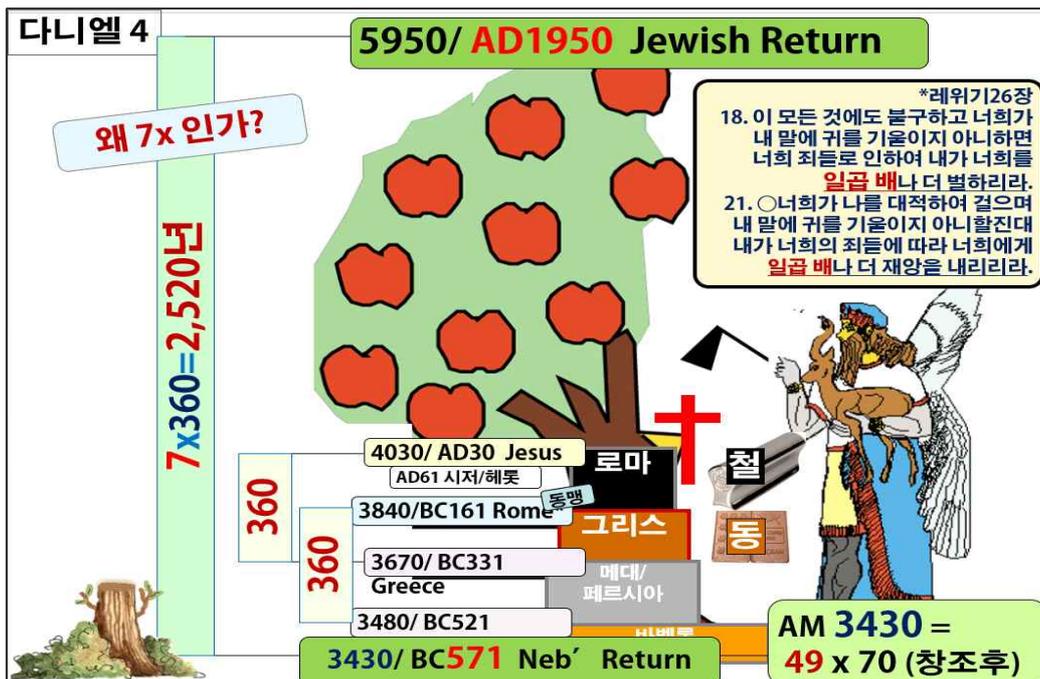


그림 4 다니엘 4장과 느부갓네살의 짐승살이 및 회복 2520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나무는 그 가지가 하늘에서 온 거룩한 자에

의해 잘려진다. 세례요한은 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마 3:10)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메시아', 즉 하늘에서 온 거룩한 자라고 말씀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마 21:43)

그림에서 AD.30년 이후 열매 맺는 나무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곧 이방인이다.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믿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다니엘에 나오는 풀무불과 같았을 것이다.⁶⁾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맺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 (레 26:41-46) 그들은 마지막 때 그들의 본토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고 그들이 지은 죄를 회개할 것이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이사야서의 한 부분이 읽혀졌다.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다. 너희는 위로하면서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녀에게 외치되, 예루살렘의 싸움은 끝났고 그녀의 불법은 용서되었나니 그녀가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하여 주의 손에서 두 배를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사야 40:1-2)

나무에 관한 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담겨있다. 옛 언약으로써의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끊어졌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모든 민족을 포함했다. 그러나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오기로 되어있었다.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은 생명나무에서 끊어짐을 당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를 확증한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그분께서 시장하시므로 멀리서 앞사귀 달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가셨으나 그것에 이르러 보시니 앞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막 11:12-14)

6) 유진 폴스티히, [History, Harmony & Daniel 65-67p] Spencer Iowa 51301, 1988년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함께 열매 맺기 시작할 때, 모든 민족으로 이루어진 한 나무로 보일 것이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믿는 로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네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 나가리라.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여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느니라. 네가 본래 야생 올리브나무에서 잘려 본성에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을진대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총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롬 11:22-26)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바라보고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이르시되, 적어도 이 날 즉 네 날에 만이라도 너 곧 네가 네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들이 네게 이르리니 그 때에 네 원수들이 네 주위에 도랑을 파고 너를 둘러싸서 사면으로 가두며 또 너와 네 안에 있는 네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고 네 안에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돌아보는 때를 네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눅 19:41-44)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 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눅 21:24)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눅 13:3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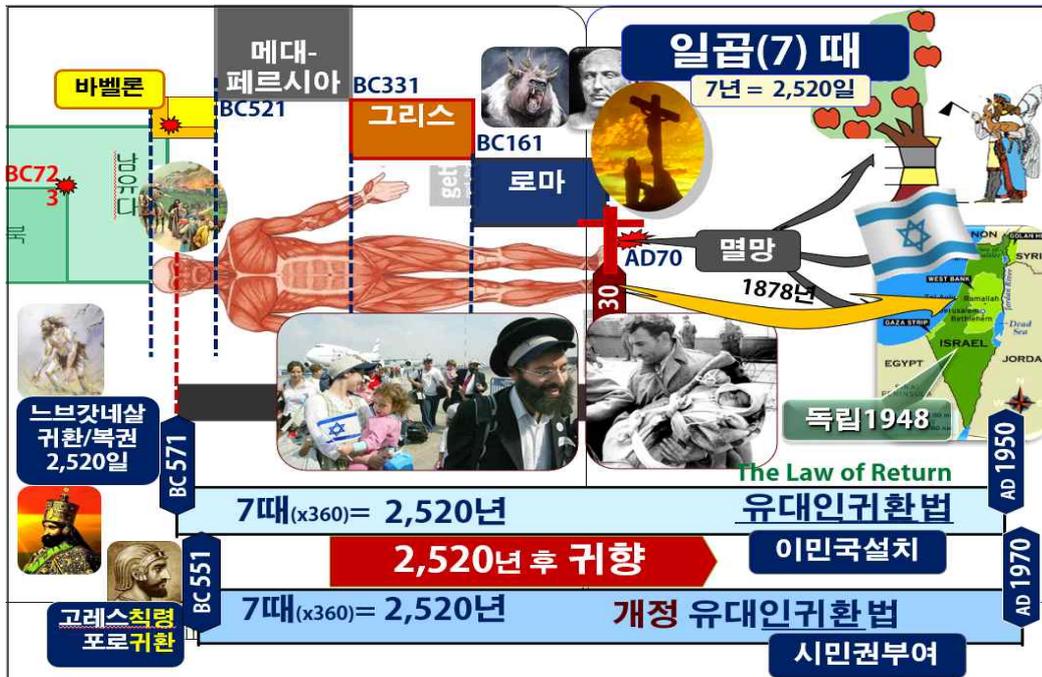


그림 5 다니엘 4장과 이스라엘의 회복 2520년

1946년 유대인들은 안식일(Sabbath), 초막절에 그들의 정부를 세웠다. 이것은 정확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정확히 700,000일 후에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와 사역은 이스라엘(야곱)이 태어난 후 정확히 700,000일 후에 일어났다. 1948년 5월 14일, 오순절에 이스라엘에서 독립이 선언되었다. 독립 선언은 BC. 6년 5월 14일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정확히 713,317일 되는 날에 일어난 것이기도 하다. 독립선언 이후, 귀환법(The Law of Return)이 1950년에 제정되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1920년 후의 일이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야곱)이 태어나고 1920년 후가 되는 때에 돌아가셨다.

성경은 창조 때부터 느부갓네살 왕 때까지 분명한 연대를 주었지만, 그 후부터는 성경과 선지자의 말들은 끝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사는 동안 나라들과 왕들에 대해 예언하셨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니엘 2장은 느부갓네살 왕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열방 가운데로 내쫓은 티투스까지의 시간들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4장의 나무줄기 부분은 2장의 신상 부분과 겹치는 시간이며, 일곱 때와 유대인들이 받는 일곱 배의 고난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이 꿈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은 반박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이는 첫째, 성경의 권위를 트집 잡는 비평가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한다. 둘째, 이스라엘이 아직도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셋째,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Jesus as the Rock)를 증거한다.

다니엘 5장. 로마의 예루살렘 성전 파괴 모형 (The type of Roman destruction)

다니엘 5장이 쓰일 무렵, 느부갓네살 왕은 동물과 함께 살았다.⁷⁾ 그리고, 당시의 통치자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던 벨사살이 왕이었다. 벨사살은 성전의 기물을 부정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고,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다시 의식이 회복되어 왕권을 회복할 때까지 그의 나라 바벨론은 잠시 동안 이방 나라인 메대(다리오-아하수에로-아스티아게스, 동일인물 임)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다. 느부갓네살 왕과 예수, 그리고 벨사살 왕 사이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발 앞에 복종시키신 뒤, 이 세상을 성부 하나님께로 돌려주실 것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때에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 드리실 때라.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멸망 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아래 두셨으나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신 분은 예외인 것이 분명하도다.**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 당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분께서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거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고전 15:20-28)

7) The nation Issrael 14p



그림 6 다니엘 연대기와 메데 왕 다리오(아하수에로)의 바벨론 통치

8)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은 그의 아버지가 7년 동안 미쳐있을 동안에 바벨론을 통치하였다. 실제로는, 성경에 언급된 대로,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기 전까지 4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삼촌인 메데 왕 다리오(Astyages)가 잠시 그 왕위를 이었다. (이 당시 바벨론과 메데는 매우 친밀한 우방이었다.) 메데의 다리우스(다리오) 왕은 그의 누이 아미티스(Amyitis)가 느부갓네살과 결혼함으로써 인하여 벨사살의 삼촌이기도 했다. 벨사살은 형식적인 왕이었고,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은 여전히 존경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벨사살은 둘째 치리자에 불과했고, 다니엘은 글자를 해석한 후 셋째 치리자가 될 수 있었다. 이때가 느부갓네살의 31년째 되는 년도이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정확히 600년 전이 되는 년도(BC.575)였다. 11년 후, 그의 동생(또는 아들)인 에월-므로닥(Evil-Morodoch)이 BC.563년에 왕위를 계승했다.

야곱이 태어나서 40번째 희년 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후, 예루살렘은 AD.70년 베스페시안(Vespasian)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를 드렸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하나

8) Theochronomerterics 17p

님의 성전이 더 이상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다. 새 언약을 믿는 사람들의 몸이 곧 성전이였다. 벨사살이 그날 밤 죽임을 당했던 것과 같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성전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겼다. 벨사살이 벽에 있는 글씨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가 온 것을 알지 못해 그를 거부했고, 계속 성전에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다가 A.D.70년에 열방으로 쫓겨났다.

다니엘 6장. 실패한 음모(The plot that backfired)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서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매우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들을 신중하게 처리했다.⁹⁾ 이것은 그의 동료들에게 불만의 요인이 되었으며 결국 그들은 다니엘을 전복시키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순간적으로 성공한 듯 했지만 결국 그들의 음모는 실패했고 죽임을 당했다. 모든 예언들처럼 이 이야기도 그림을 통하여 미래에 일어날 몇 가지 사건들을 내다보고 있다. 모든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니엘은 세 명의 총리 중 한명이었다. 그래서 그는 시기하는 방백들과 총리들은 그를 죽이고자 법을 이용하려고 했다. 그들은 왕을 설득시켜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절을 하도록 했다. 다니엘이 경배하기를 거부했을 때, 그는 사자 굴에 던져져 저녁을 보냈다. 사자 굴은 돌로 막혔으며, 그 돌에는 그 명령을 확실히 하기 위한 왕의 인장이 찍혀졌다. 아침에, 다니엘을 무척 걱정하던 왕은 다니엘이 무사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 왕은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 굴에 넣어 멸했다.

9) Theochronometrics 18p

| 다니엘 이야기 | | 다니엘서 6장 | | 예수 그리스도 | |
|---|-----------------|---|-----------------------------|---|--|
|  | |  | |  | |
|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니엘과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은? | | | | | |
| 1. 다니엘 /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 심판 | 13. 거듭되는 요구/사형선언 | 무리의 독촉 | | |
| 2. 왕이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함. | 권세를 위임 | 14. 사자굴에 던져졌으며 | 사형당함 | | |
| 3. 다른 지도자들이 싫어함. | 다스림을 거부 | 15.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 구원 | | |
| 4. 다니엘이 아무 허물이 없음. | 죄와 허물 없음 | 16. 바위로 입구를 막음 | 돌을 굴려.. | | |
| 5. 입법-행정가들이음모 | 지도자들 모함 | 17. 왕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함. | 봉인됨 | | |
| 6.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발견 | 율법적 근거 | 18. 새벽에 동굴로 찾아감. | 새벽에 동굴로 | | |
| 7. 유일하게 경배받는 법으로 고발 | 한 분 만 경배 | 19. 살아있고 무사함을 확인하였다 | 살아있음 | | |
| 8. 제국의 고치지 않는 규제 | 왕국/영원한 법 | 20. 무죄함이 증명됨. | 무죄함 | | |
| 9. 무리가 기도하는 다니엘을 발견 | 기도하는 중 | 21. 고소했던 자들 죽음을 당함. | 고소한 자들 | | |
| 10. 왕에게 끌고감. | 체포되어 끌려 | 22.. 왕은 조서를 내려 평강을 말함 | 평강을 공포 | | |
| 11. 유다 자손 중의 다니엘이... | 유다지파 | 23.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 하나님 경외 | | |
| 12. 사형권자가 구하려고 애씀. | 살리려 노력 | 24. &&&& | &&&& | | |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가진 세 가지 위치(삼위) 중에서도 한 부분(성자)을 차지한다고 배웠다. 유대 종교인들은 법을 통해 예수를 모함하고자 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주장했을 때, 예수님을 정죄했다. 결국 예수님은 로마 통치자의 인이 찍힌 돌로 막혀 있는 무덤 속에 장사되었으며, 다음 날 아침 아무런 해도 받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러나 그를 모함했던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 열방으로 흩어졌다.

다니엘 7장. 하나님 나라와 로마의 왕들

(The Kingdom of God and Roman Kings)

다니엘은 7장에서 네 나라를 네 마리의 동물로 묘사했는데, 이 동물들은 신상의 그림을 통해 이미 2장에서 언급된 나라들이다.¹⁰⁾ 2장에 나온 나라들이 7장에 다시금 언급되었다는 것은 네 나라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나라들의 정체는 동물들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제시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동물들의 특징이 역사상 바벨론의 뒤를 이은 강대국들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되기 때문이다. 다니엘은 열 왕으로 이루어진 네 번째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에 초점을 맞췄다. 이 나라에서 일어난 첫 번째 왕은 줄리어스 시저였다. 다니엘의 관심은 첫째 왕 뿐만

10) Theochronometrics 19p

아니라, 셋째 왕과 열 번째 왕(베시파시안 A.D.70)에게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모든 관심은 세 번째 왕으로 모아지는데, 이 시기에 모든 메시아에 관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왕은 티베리우스(Tiberius)였다. 그 당시 작은 뿔이 보다 작은 권세를 가지고 등장하는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대적하는 말을 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유대인)를 괴롭히고 때와 법을 변경하고자 한다. 이 사람은 로마의 11)본디오 빌라도(Pontius Pilate)일 수 밖에 없다. 그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다스렸다. (26-30 A.D.) 그는 결국 지극히 높은 자에게 권세를 빼앗겼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세워졌으며 그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묘사되었는데, 이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다. 그 분이 보좌에 앉아 계셨을 때, 인자(성자 예수님)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그 분 앞에 인도되었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을 통치하는 권세를 받게 되었다. 새 언약이 옛 언약과 다른 점이 있다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림 8 다니엘 7장과 한 시기(90)와 한 때(360)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지만, 한 계절과 한 때 동안 그 생명은 보존되었다.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줄리어스의 90년 후 인 세 번째 왕 티베리우스 때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인도되셨다. 그리고 열 번째 왕인 베스파시안 때, 이스라엘은 흩어졌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360년 후 로마의 66번째 황제였던 12)테오

11) Josephus, Antiquities(XVIII.iii.1.) 참고

도시우스(Theodosius)는 밀란(Milan)의 암브로시우스(Ambrose) 교황에게 사죄를 하였다. 생명이 정한 시기까지 보존된다는 말을 영적인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때 네 나라들은 정한 시기 후에 종교적으로 멸망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로마 황제가 교회 우두머리인 교황에게 무릎을 꿇은 행위는 곧 로마가 하나님 나라에게 멸망당한 것을 상징한다.

다니엘에 의해 예언된 중요한 사건들은 네 번째 나라의 초기에 일어난 것이었다. 그 때 예언대로 **때가 변개**되었다. 왜냐하면 줄리어스 시저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성경의 연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음력을 없었다. 천문학의 도움 없이 성경에 나타난 정확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달력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다니엘 8장. 그리스 왕국 통치 기간

(The duration of the kingdom of Greece)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때**를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차지하는 것과 관련시켰다.¹³⁾ 이 일이 1967년 6일 전쟁에 일어났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 때에 관련된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 때로 이해했었다.

현재 많은 크리스천들이 '대체신학(replacement theology)'을 받아들인다. 대체신학이란, 간단히 말해 교회가 육적 이스라엘을 대신한다는 이론이다. 교회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이 신학 이론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2000년 만에 다시 차지했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신실한 크리스천들에게조차 아무런 놀랄 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오히려 반(反)유대 감정이 아직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 아닐까? 독일의 루터파 교회 사이에서 20세기 초 반(反)유대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1932년까지 미국에 있는 루터파 교회도 그 영향을 받아 이스라엘에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는 사실을 부정했었다. 이러한 크리스천들의 반(反)유대 감정은 초대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취한 입장도 아니었으며, 마틴 루터가 실제로 의도하던 바도 아니었다.

12) Encyclopedia of World History, 5th Edition 134p

13) 유진 폴스티히, [Bible Chronology 37p] Spencer, Iowa 51301, 1991년

다니엘 8장은 알렉산더부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까지의 그리스 왕국에 관한 부분(1-2)과 마지막 때에 관한 부분(13-27)으로 나눌 수 있다.

1) 그리스 소개: 알렉산더 대왕부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까지(1-12)

다니엘 환상의 첫 부분에서는 두 뿔을 가진 숫양과 하나의 뿔을 가진 숫염소로 상징되는 두 왕이 강가에서 만나 싸우면서 시작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싸움을 페르시아의 다리우스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사이에 일어난 전쟁으로 이해한다. 이 전쟁은 다니엘서의 예언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 전쟁은 그리스 달력으로 아르테미시우스(Artemisius) 28일, 현재의 달력으로 334 B.C. 6월 7일, 성경력으로는 셋째 달 28일에 일어났다.

알렉산더가 323 B.C. 6월 10일에 죽은 뒤, 그의 왕국은 그의 4명의 장군에 의해 4개의 지역으로 분할되었다. 그 중에서 셀레우코스(Seleucus)는 팔레스타인의 북쪽 지방을 다스렸고, 프톨레미(Ptolemy)는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의 남쪽 지방을 다스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을 사이에 두고 서로 싸웠다.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북쪽 왕은 셀레우코스이며, 남쪽 왕은 프톨레미이다. 그리고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Antiochus Epiphanes)이다.



그림 9 다니엘 8장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2300년

14)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7장의 작은 뿔과 혼돈하지 말 것)는 유대인들의 제단 위에서 돼지를 태움으로써 성전을 훼파했다. 3년(1092일)동안 이 제단은 그리스인들에 의해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으로 사용되었다. (167 B.C. 12월 13일 - 164

14) 마카비 경전 1장 30-62절

B.C. 12월 8일) 마타디아스의 아들인 유다 마카비(Judas Maccabee)는 그리스의 군대와 싸워 이긴 후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때가 성경력으로 9번째 달 25일 (Kislev 25)이다. 이 날은 3년 전 성전이 훼파 당했던 바로 그 날이기도 하다. 삼년 후 (BC.161년) 유대인들은 로마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유대 땅에서 그리스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

2) 마지막 때(13-27)

알렉산더와 다리우스 사이에서 발발한 전쟁(334 B.C. 6월 7일)부터 2300년이 되는 때(A.D. 1967 6월 7일)가 지나면 마지막 때가 오기로 되어있다.

본문은 2300년 기간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한 사람을 가리킨다. 아돌프 히틀러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박해했으며 그의 말에 따르지 않은 크리스천들도 박해했다. 그의 얼굴은 긴장했고 사탄으로부터 말미암은 권세를 가졌으며, 결국 자기 자신의 손으로 죽음에 이르렀다(제 3제국 1933-1945). 그가 저지른 대학살(Holocaust)은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을 가속화시켰다. 그는 2300년이 끝나기 34년 전에 일어났다. 이 34년은 예수님이 사셨던 기간보다 6개월 짧은 시간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만일 이 고난이 기간을 줄이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 그 기간이 줄어들 것이다.” (마 24:22) 아돌프 히틀러는 적그리스도(Anti-messiah)였다. 그리고 ¹⁵⁾그는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를 가장 이상적인 사상으로 받아들였다. 만약 2차 대전이 6개월만 길었어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다니엘이 이 대학살에 관한 이상을 보았기 때문에, 기절하여 수일 동안 아파했을지도 모른다.

15) Adolf Hilter, Mein Kampf by Ralph Manheim 393p 참고



그림 10 다니엘 8장 마지막 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2300주야 2300년

그리스의 왕 콘스탄틴 2세는 1967년 4월 21일 폐위당하고, 같은 해 12월 14일 그리스에서 쫓겨났다. 그의 망명은 유대인의 성전이 로마 티투스 장군에게 파괴된 후 정확히 693,000(9000×77)일 후에 일어났고 그가 폐위당한 것은 알렉산더가 다리우스를 패배시킨 후 정확히 840,000일(120,000주)후에 일어났다. 이방인의 상징인 그리스 왕국은 그 때에 끝이 난 것이고 정확히 2300년 동안 지속해 왔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다. (롬 11:25)

이스라엘은 몇 개의 아랍 영토들과 예루살렘, 시나이 반도, 그리고 옛 성전이 있었던 장소를 A.D. 1967년 6월 7일에 회복했다. 이것은 알렉산더와 다리우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 난지 정확히 2300년 후의 일이다. 아랍군은 소련제 중무기로 무장했지만 이스라엘 군에게 비참한 패배를 당했다. 그러나 6일 전쟁 후 정확히 777주¹⁶⁾가 지나서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 반환했고 정확히 1370주 후

16) 달력변환 프로그램 참고 URL; <http://www.calendarhome.com/converter/>

이스라엘은 PLO와 역사적인 평화 조약에 서명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 있을까? 이러한 일들은 고라 자손의 시를 생각나게 한다.

오 딸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한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을 잊을 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리니 그분은 네 주시니라.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시편 45편 10-11)

Calendar Converter

Gregorian Date: 1967 June 7 | Normal year | Time: 09 : 00 : 00 | Weekday: Wednesday

Julian Date: 1967 May 25 | Normal year | Wednesday
Julian day: 2439648.875 / **Modified Julian Day:** 39648.375

Hebrew Date: 5727 Iyyar 28 | Embolismic complete (385 days) | Hebrew month: אייר

그림 11 6일 전쟁 때 예루살렘을 회복한 날
 두 날짜는 5439일의 차이가 난다; 2445087.875 - 2439648.875=5439일, 5439÷7=777주

Calendar Converter

Gregorian Date: 1982 April 28 | Normal year | Time: 09 : 00 : 00 | Weekday: Wednesday

Julian Date: 1982 April 15 | Normal year | Wednesday
Julian day: 2445087.875 / **Modified Julian Day:** 45087.375

Hebrew Date: 5742 Iyyar 5 | Common regular (354 days) | Hebrew month: אייר

그림 12 시나이반도를 이집트에게 반환했던 날

표 1 6일 전쟁 예루살렘 회복의 날에서 시나이반환까지 두 날짜의 차이는 777주

1967년은 그리스 교회(동방 정교회)와 로마 교회(서방 교회)가 동서 교회 분열(1054 A.D.)이 일어난 후 처음으로 화해한 년도이기도 하다. 양 교회 수장은 콘스탄티노플과 바티칸에서 두 차례의 회동을 가졌었는데, 이러한 회동은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이 해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중요한 해이다.

다니엘 9장. 490년간의 이스라엘

(490 Years of Israel's Government)

다니엘은 이 장을 메대 왕 다리오가 바벨론을 통치했던 원년에 기록하였다.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마치리라고 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였다. 그는 벨사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잃고 죽은 것을 보았다. 이러한 것이 다니엘을 슬픔에 잠기게 했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했다. 다니엘은 '날수를 세어 너희 나라를 끝내며 나누리라'는 벽에 쓴 글씨를 기억하고 더욱 힘써 기도했다. 이 기도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생길 일과 그 일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까지도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 BC.575년의 153년 전인 BC.728년에 이사야는 고레스(Cyrus)라는 고유한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그가 칙령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 이 예언은 BC.551년 고레스 원년에 정확히 실현되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게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자니라. (사 44:28)

고레스의 칙령은 그의 원년(551 B.C.)에 발표되었으며, 49년 후인 BC.502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인 느헤미야가 다리우스 20년이 되는 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심할 때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 왔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재건된 때부터 434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 죽임을 당할 것이며 장차 한 강력한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그 성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종말이 홍수처럼 밀어닥칠 것이며 끝 날까지 전쟁과 파괴가 그칠 날이 없을 것이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7일(7년) 계약을 맺을 것이며 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났을 때 그가 유대인들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성전을 더럽히며 거기에 흉측한 것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작정된 종말까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에게 쏟아질 것이다. (단 9:2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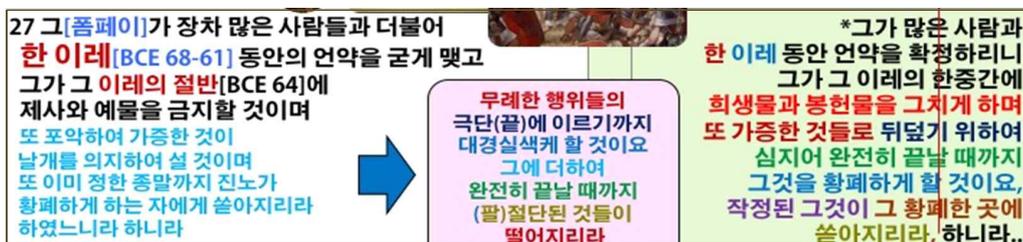


그림 13 다니엘 9장 27절 해석



그림 14 다니엘 9장 마지막 한 이레 동안 있었던 사건들

폼페이는 성전으로 들어가 7년의 절반인 3년 반 후에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켰다. 이로써 161 B.C.에 로마와 맺은 동맹은 파기되었다. 그리고 삼년 반 후인 61 B.C.에 줄리어스 시저와 헤롯 안티파스가 유대지방으로 왔고 다니엘이 예언한대로 490년이 끝났을 때, 유대인들은 그들의 정부를 사실상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 때는 로마와 동맹을 맺은 지 정확히 100년이 되는 해였다. 주목해야 할 것은 작성된 종말까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에게 쏟아질 것이라는 말이다. 이는 문자적으로는 로마의 폼페이를 말하지만, 팔레스타인의 황폐함에 대해 예언한 것이기도 하다. 그 곳의 황폐함(desolation of Palestine)이 작성된 종말에 끝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본토로 돌아온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가 아닐까?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포로 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피폐한 도시들을 건축하여 거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포도즙을 마시며 또한 동산들을 만들어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준 그들의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네 하나님이 말하노라. (암 9:14-15)

대제사장이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하르카누스(Hyrchanus II)는 그의 동생(아리스토틀루스)과 폼페이의 음모로 폐위당했다. 로마 장교 폼페이는 그 당시 로마군을 괴롭혔던 지중해의 해적들을 소탕하고자 했다. 로마는 7장에서 가장 무섭게 묘

사된 짐승이었는데, A.D. 70년 이스라엘을 완전히 황폐화(desolate)시켰다. 이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한 것이기도 하다.

그 나머지 짐승들로 말하건대 그들이 자기들의 통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한 시기와 때 동안 연장되었더라. (단 7:12)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434년 후 제거될 왕은 의심할여지 없이 '하르카누스(Hyrchanus)'였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스라엘의 주권은 사실상 BC.61년에 끝이 났다. 첫 번째로 짐승들의 정해진 생명의 시간이 끝나는 것은 90년 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을 때 (A.D.30)이다. 두 번째로 끝나는 것은 360년 후, 로마의 황제가 교회의 우두머리에게 사죄했을 때 (A.D.390)이다. 이 역사적인 사건 이후 300년이 자났을 때, 모슬렘의 회교 사원이 세워졌고, 1260년 후 이스라엘의 이민법이 제정되었다. (12장 참조)

다니엘 10, 12장. 봉인을 열어야 할 시간 (Time to open the seal)

다니엘 11장은 셀루커스와 프톨레미가 이스라엘 땅을 사이에 두고 쟁탈전을 벌이는 장면에서부터 안티오쿠스의 등장까지를 자세히 예언한 장이다. 11장이 너무도 상세히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BC.150년 이후에 쓰여 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다니엘서는 예언서가 아니라 역사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유대인 랍비들이 다니엘서를 알렉산더 대왕에게 보여 주어 그의 호감을 살 수 있었던 사실만 보더라도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기 때 쓰인 예언서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다니엘서를 예언서로서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11장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 장에서는 10장과 12장을 함께 다루었다.

17)그때에 나 다니엘이 보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하나는 강둑의 이쪽에, 다른 하나는 강둑의 저쪽에 있더라. 하나가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던 사람에게 이르되, 얼마나 있어야 이 이적들의 끝이 이르겠느냐? 하매 내가 들었는데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던 사람이 자기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을 향해 올리고 영원토록 사시는 이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그것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관한 것이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흠여 놓는 일을 이루게 될 때에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단 12:5-7)

17) Theochronometrics 23p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로부터 천이 백구십 일이 있으리라. 기다려서 천삼백삼십오 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네 길로 가라. 네가 안식하다가 그 날들의 끝에 네 몫으로 정한 곳에 서리라. (단 12:11-13)

매일 드리는 제사는 여호야김 8년, 느부갓네살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을 때부터 폐하여 졌다. (열하 24:1, 역하 36:7) 1290년 후 성전이 있던 그 장소에 회교 사원이 우뚝 세워졌다. 이는 세레 요한이 그의 사역을 시작한 후 666년째 되는 해이기도 하다. 회교 사원이 세워지고 1260년 후, 모든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스라엘의 이민법이 제정되었다. 회교 사원이 세워지기 45년 전, 페르시아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는데 이 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교회가 파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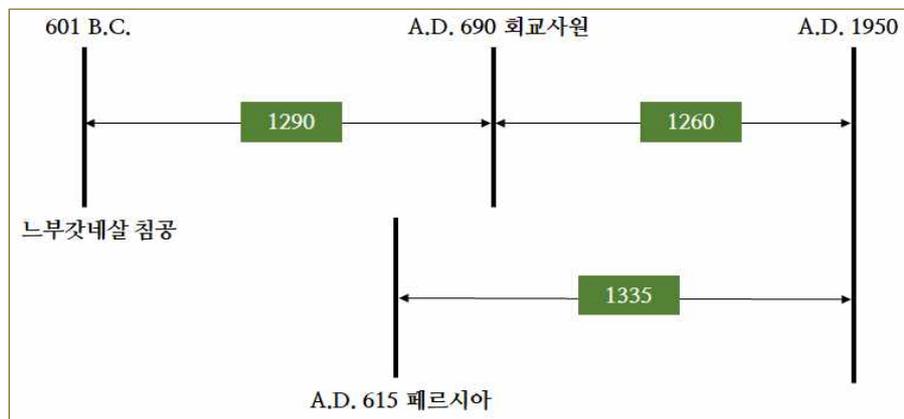


그림 15 1290년과 1260년, 1335년에 대한 해석

AD.690년부터 AD.1950까지의 1290 (3년 6개월과 상응)이라는 기간을 살펴 보자.¹⁸⁾ 예수님 또한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셨다. 빌라도가 AD.26년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왔고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정확히 3년 6개월 동안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정확히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셨다.

18) History, Harmony & Daniel 13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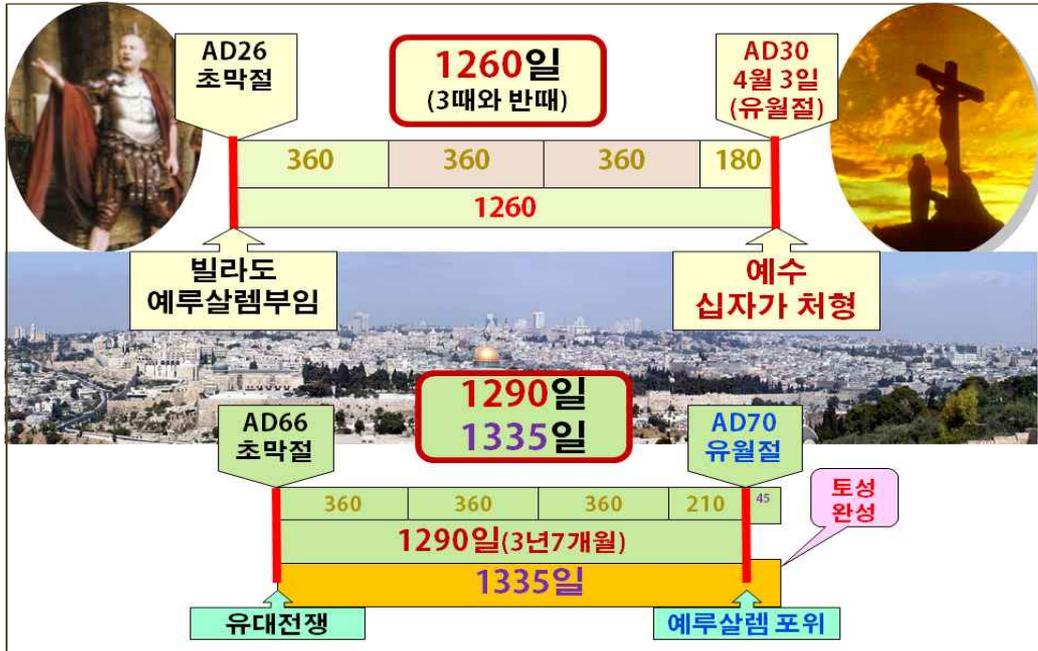


그림 16 1260일과 예수 십자가 사건, 1290일 및 1335일과 유대전쟁사건

다니엘은 그에게 주어진 환상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 환상은 마지막 때에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멸망케 하는 흉측한 것(Abomination of desolation)'의 정체는 마태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너희 예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멸망케 하는 흉측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 24:15)' 다니엘 또한 '멸망케 하는 흉측한 것을 세울 때부터...' 라는 말을 했다. 예수님과 다니엘이 말한 멸망케 하는 흉측한 것은 가장 잔인한 짐승이었으며, 유다 땅을 황폐하게 했던 로마 군대를 의미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로마 군대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정확히 40년이 지난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유대전쟁사 V.III.1). 티투스 장군은 유대인들에게 동정을 베풀며, 45일간의 기간 동안 항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이 나무를 이용해 만든 경사로를 불태워서 티투스 장군을 매우 화나게 했다. 티투스는 아무도 못 빠져나가도록 예루살렘 주위에 또 다른 벽을 만들고는 예루살렘을 함락했다

로마군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1290일 전 시리아의 장군 세스티우스(Cestius)가 유대인들을 공격했는데, 이 때가 A.D. 66년 초막절(Feast of Tabernacle)이었다(유대전쟁사 II,xix.2). 이 때,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한다는 다니엘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날부터 로마 군대가 거룩한 곳에 왔을 때까지 1290일이 지났으며 이때 또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져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까지 45일(총 1335일)이 지났다. 유대 전쟁 당시 일어난 모든 사건은 다니엘의 예언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상 다니엘의 예언은 독특한 성경 연대기로 관찰하고 해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분명하게 해석되지 못했던 다음 몇 가지 사실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 ① 2300년에 관한 예언 성취
- ② 신상의 비율에 따라 정확히 이루어진 예언
- ③ 490년(70 이레)에 관한 올바른 이해
- ④ 나무의 비율에 따라 정확히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
- ⑤ 1260, 1290, 1335년에 관한 역사적 성취
- ⑥ 영원한 왕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대기를 통해 증명
- ⑦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한 기록한 책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는 예언을 기록하셨고, 지금도 그 구약의 말씀을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통해 성취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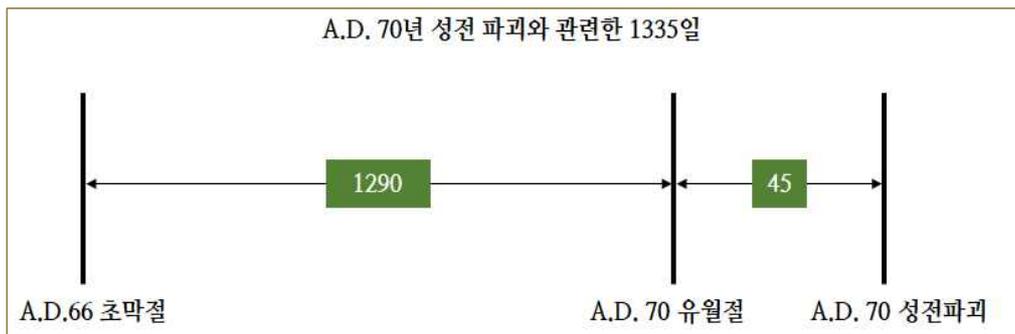


그림 17 1290일과 1335일에 관한 도표

부록1 - 유진 폴스티히 연구-성경연대기표(CHRI) 요약표(19)

| 큰 사건 | Reference | 창조후년도 A.M.(유대력) | 년도 차이 | 그레고리안력 (B.C./A.D.) | 세부사건 / 이름 | Meanings |
|-----------|-------------|--------------------|----------------|-----------------------|---------------------------------------|--------------------------------------|
| 천지창조 | 출 12:1-2 | 0.12.21 | 0 | B.C.4001.03.18 | (אַרָא), Bara | Creation(무에서의 창조) |
| | 창 1:26 | 0.12.28 | 130 | B.C.4001.03.24 | 1.아담(אָדָם), Adam(930) | Adamah(Dust-완전한 흙 사람) |
| | 창 5:3 | 130.12.29 | 105 | B.C.3870.03.18 | 2.셋(שֵׁט), Seth(912) | Appointed one(예정된 자) |
| | 창 5:6 | 235.04.12 | 90 | B.C.3766.06.19 | 3.에노스(אֵנוֹשׁ), Enosh(905) | Mortal frailty(죽음을 가진 연약함) |
| | 창 5:9 | 325.03.18 | 70 | B.C.3676.06.20 | 4.케난(קֵנָן), Kennan(910) | Smith(만드는 자) |
| | 창 5:12 | 395.04.11 | 65 | B.C.3606.06.20 | 5. (מַלְאֲלֵל), Mahalalel(895) | God be praised(하나님이 영광받으심) |
| | 창 5:15 | 460 | 162 | B.C.3541 | 6.야렛(יָרֵד), Jared(962) | Descent(하늘에서 온) |
| | 창 5:18 | 622.11.20 | 65 | B.C.3378.02.03 | 7.에녹(חֵנוֹךְ), Enoch(365) | Dedication(예물로 헌신) |
| | 창 5:21 | 687.03.30 | 187 | B.C.3314.06.22 | 8.므두셀라(מֶתוּשָׁלֵחַ), Methusaleh(969) | When he dies, Judgement(죽음 뒤 심판) |
| | 창 5:25 | 874.03.27 | 182 | B.C.3127.06.23 | 9.라멕(לָמֶךְ), Lamech(777) | Conqueror(승리자) |
| | 창 5:28 | 1056.01.01 | 500 | B.C.2945.03.29 | 10.노아(חַיִּי), Noah(950) | Rest(안식, 안위) |
| | 창 6:10 | 1556.04.08 | 2 | B.C.2445.06.29 | 야벳 출생 | 확장 / 노아 500세 때 낳음 |
| | 창 6:10 | 1558.03.30 | 2 | B.C.2443.06.29 | 함 출생 | 뜨거움 / 노아 502세 때 낳음 |
| 창 6:10 | 1560.04.25 | 96 | B.C.2441.06.29 | 11.셈(שֵׁם) 출생 | 명예 / 노아 504세 때 낳음 | |
| 노아의 대홍수 | 창 7:11 | 1656.02.10 | 0 | B.C.2345.05.07 | 방주탑승 | 7일간 |
| | | 1656.02.17 | 1 | B.C.2345.05.14 | 홍수(חַיִּי), Flood(365일) | Flood(홍수기간 365일) |
| | 창 8:13 | 1657.02.28 | 3 | B.C.2344.05.14 | 방주 밖으로 나옴(371일간) | |
| | 창 11:10 | 1660 | 35 | 2341 | 12.아르박삭(אַרְפַּכְשָׁד) | 영역 |
| | 창 11:12 | 1695 | 30 | 2311 | 13.셀라(שֵׁלָה) | 보냄을 받은 자, 확장 |
| | 창 11:14 | 1725 | 34 | 2276 | 14.에벨(עֵבֶל) | 건너온 자 |
| | 창 11:16 | 1759 | 30 | 2242 | 15.벨렉(בֶּלֶעַךְ) | 나님, 분리, 분열 |
| 창 11:18 | 1789 | 32 | 2212 | 16.르우(רְאוּ) | 친구 혹은 이웃 | |
| 창 11:20 | 1821 | 30 | 2180 | 17.스룩(שֹׁרֹךְ) | 덩굴손, 매우 단단한 힘, 활 | |
| 바벨탑 사건 | 창 11:1-9 | 1825 | | 2176 | 사건(니므롯 주도) | 창조이후 666,666일 지남 / |
| | 창 11:22 | 1851 | 29 | 2150 | 18.나홀(נָחוֹל) | 코끼리를 뺏다 |
| | 창 11:24 | 1880 | 70 | 2121 | 19.테라(תֵּרָח) | 체류하다, 지체하다 |
| 아브라함 | 창 11:26 | 1950 | 100 | 2051 | 20.아브라함(אַבְרָהָם) | 열국의 아비 |
| 이삭 | 창 21:5 | 2050 | 60 | 1951 | 21.이삭의 출생 | 웃음 / 7월 29일(Ab 7) |
| 야곱 | 창 25:26 | 2110 | 7 | 1891 | 22.야곱(이스라엘)의 출생 | 사기꾼 / 3월 30일(Abib 6) |
| 야곱 7세 일식 | | 2117 | 123 | 1884 | 야곱의 7세때 일식 나타남 | 창조이후 773,377일 지남 |
| 애굽으로 이주 | 창 47:9 | 2240 | 300 | 1761 | 야곱의 70명 가족, 애굽으로 이주 | |
| 출애굽 | 출12:1-14 | 2540 | 40 | 1461 | 출애굽 | (Nisan 15) |
| 여호수아의 긴 낮 | 수10:12-14 | 2580 | 403 | 1421 | 여호수아의 긴 낮과 우박사건 | 4월 18일 화(Abib 29) |
| 다윗의 사로잡힘 | 에스겔 4:1~8 | 2983 | 37 | 1018 | David captured Jerusalem | |
| 성전건축 | 왕상 2:11/6:1 | 3020 | 391 | 981 | 솔로몬의 성전건축 | 왕상 6:1 |
| 70년 시작-끝 | 겔24:1~학2:15 | 3411-3481 | 2 | 590~520 | 예루살렘의 포위, 70년 시작. | 12월21일(Tevet 10) ~ 12월10일(Kislev 24) |
| 1차 성전파괴 | | 3413 | 17 | 588 | Jerusalem 1st fell | 7월 31일(Ab 7) |
| 느브갓네살의 복권 | 단4:16 | 3430 | 20 | 571 | 광인이었다가 다시 복권됨 | 3월 21일(Nisan 1) |
| 고레스칙령 | 스5:13/단1:21 | 3450 | 49 | 551 | 포로귀환조서 (490년 시작) | 12월 14일(Kislev 14) |
| 예루살렘재건 | 단9:25 | 3499 | | 502 | 70이레 (49년 지남) | 12월 12일(Kislev 12) |
| 힐카누스2세 폐위 | | 3933 | | 68 | 62이레 (434년 지남) | 아리스토틔로스 2세 배신(64년) |
| 폼페이 개선 | | 3940 | | 61 | 마지막 1이레 (7년 지남) | 지성소전입-BCE 64년6월18일(Sivan 23일) |
| 예수의 탄생 | 마 2:2 | 3995 | 35 | BCE 6 | Jesus was born(Messiah) | 5월 14일(Iyyar 28) |
| 예수의 죽음 | 요 19:30-31 | 4030 | 0 | CE 30 | Jesus Died | 4월 3일 수(Nisan 14) |
| 예수의 부활 | 요 20:1 | 4030 | 40 | 30 | Jesus Resurrection | 4월 6일 토(Nisan 17) |
| 2차 성전파괴 | | 4070 | 1878 | 70 | Jerusalem 2nd fell | 11월 6일 토(Elul 14) |
| 뉘렌베르그 재판 | | 5946 | 2 | 1946 | 전범 재판과 사형집행 | 10월 16일 01시16분, 십자가100,000주 |
| 이스라엘의 독립 | | 5948.02.05 | 2 | 1948.05.14 | Israel Independence | 5월 14일(Iyyar 5) |
| 유대인 귀환법 | | 5950 | 17 | 1950 | 유대인 귀환법 (이민국설치) | 7월 5일 |
| 6일 전쟁 | | 5967 | 3 | 1967 | Six day War | 6월 07일(Iyyar 28)-예수탄생일과 동일 |
| 개정 귀환법 | | 5970 | 25 | 1970 | 개정된 귀환법 (시민권부여) | |
| 2000번째 생일 | | 5995 | 25 | 1995 | 예수님의 2000번째 생일 | 5월 28일(Iyyar 28)-예수탄생일 |
| 현재(2020년) | | 6020 | | 2020 | 예수님의 2025번째 생일 | 5월 22일(Iyyar 28)-예수탄생일 |

19) 양승원, 『성경과학과노라마』 (서울: 러빙라이프, 2019), 346. 유진 폴스티히, 1권 성경연대기표 참조